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5월 17일 (셋째 주일/교사주일)

성경본문 : 로마서 4장 17-25절

설교제목 : “의인됨”

오늘은 구원의 결과 네 번째 주제로, ‘의인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됨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용어가, ‘의’, ‘죄’,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관계를 깨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결과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상태를 의인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어집니까? 롬4:3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편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의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하심을 받습니다.(롬4:25)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사건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근거로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17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 처지와 상황은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아내의 태가 닫혀 전혀 생식능력이 전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창15:5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 자손이 하늘의 못별과 같이 셀 수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18-21절)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17절 하반절)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삶과 동일한 삶을 경험합니다. 전혀 소망없는 상황, 죽음과 같은 현실, 수없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닌,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삶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명확한 믿음이 있다면 상황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의인됨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인됨이 무엇으로 증명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의인의 삶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무엇을 하느냐 아니냐로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제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창22:8) 나의 이해와 상황을 초월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생겨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은 그가 비록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으나 그는 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고, 오랜 세월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22:1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인됨을 증명한 것입니다.(창22:12)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험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시험의 상황은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그러나 의인된 그리스도인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의인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적인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받아 의인으로 완성되는 자들입니다. 삶은 참으로 우리에게 여러 굴곡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수록 이러한 삶의 변수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있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헛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신앙적 활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적 활동은 풍성한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종교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는 것’입니다.(막3:14) 즉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인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의인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갔던 이야기가 있다면 각자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